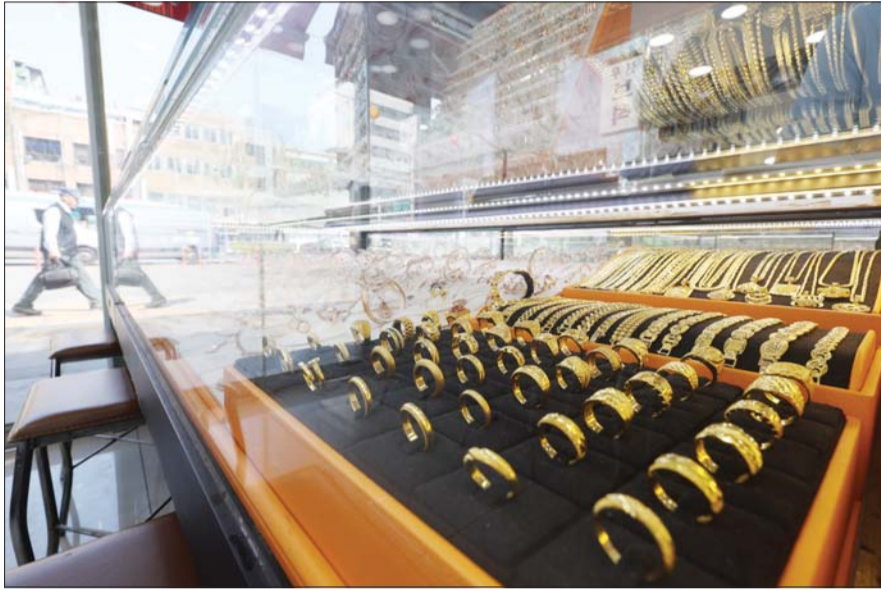


# ‘K-주얼리’ 수출 19년만에 최대... “관세면제, 경쟁력 키워야”

### 무협, 주얼리 수출산업 현황

제작년 총 교역액 1000억 韓, 작년 주얼리 수출비중 0.07%  
“산업육성·업체 양성화 기반 마련  
원가 부담 경감 정책적 지원 절실”



서울의 한 귀금속 매장에 진열된 금 제품 모습. /뉴시스

지난해 우리나라 보석류 수출액이 2005년 이후 최대규모인 4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글로벌 주얼리 수출에서의 비중이 0.07%에 불과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리쇼어링 정책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표한 ‘국내 주얼리 수출 산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얼리 교역은 최근 10년간(2012~2022년) 매년 3.9% 성장했고, 2022년 총 교역액은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탄탄한 내수시

장을 보유한 중국(32.9%)과 미국(20.2%) 인도(17.6%)가 전 세계 주얼리 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글로벌 주얼리 교역에 활기가 돌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주얼리 수출도 4억 3000만달러로 2005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의 주얼리 수출액은 2020년 2억달러, 2021년 3억5000만달러, 2022년 3억3000만달러, 2023년 4억 3000만달러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글로벌 주얼리 수출에서 우리나라 주얼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04%,

2021년 0.05%, 2022년 0.05%, 2023년 0.07%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 자사 총수출에서 주얼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전문 주얼리 수출기업 수는 90개 사에 불과했고,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한 6개사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78.6%를 차지한다.

주얼리 수출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고 소수 상위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체계적인 수출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주얼리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을 수립해 업체 양성화와 함께 중장기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얼리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다이아몬드 등 25종의 주얼리 원석과 나석에 적용되는 관세면제 조치를 진주·수정 등 70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중소 주얼리 제조 업체

의 원가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로 이전한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해 국내 제조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수준에 준하는 품질 인증 체계를 마련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망 전시회 참가, 한국 문화를 융합한 디자인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등 마케팅 전략도 주문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주얼리 산업은 경기 변동 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한국은 국제기능올림픽 귀금속공예 부문에서 26회 연속 입상하는 등 뛰어난 주얼리 세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의 수출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金채소’ 영향... 생산자물가 4개월째 상승

한은, 축산물 2% 수산물 1.6% ↑  
배추 36% 김 19.8% 등 큰폭 상승



채소값 상승으로 생산자물가가 4개월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배추, 양파 등 채소값이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2.46으로 전월(122.21) 대비 0.2% 상승했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지수가 154.20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1.3% 올랐다. 축산물(2.0%)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수산물(1.6%)과 농산물(0.4%)이 뒤를 이었다. 배추(36%)와 김(19.8%), 양파

(18.9%), 돼지고기(11.9%) 등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공산품지수는 122.64로 석탄·석유제품(0.5%), 화학제품(0.6%), 제1차금속제품(0.7%)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3% 올랐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

업용 도시가스(2.6%)가 오르면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농산물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1%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김은 해외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변동을 측정 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최종재가 0.1% 내렸으나 원재료와 중간재 물가가 각각 0.8%, 0.3% 올랐다. 국내출하에 수출품을 더한 총산물 물가지수도 한달 전보다 0.3% 상승했다. 서비스(0.0%)는 보합이었으나 농림수산물(1.1%), 공산품(0.5%)이 올랐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8.2억 지급

권익위, 총 68명 신고... 수입금 70억

10%) 순이었다.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8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회수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68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분야별 비중을 보면, ▲복지(23건, 34%) ▲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8억원, 34%) ▲연구개발(1.9억원, 24%) ▲복지(1.1억원, 14%) ▲의료(0.8억원,

복지 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사례를 보면, 신고자 A 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 씨에게 약 47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위라벨일자리 및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 2024 경상북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공고

2024 경상북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와 동법 시행령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최됨을 공고합니다.

#### 대회 개요

- 대회기간 : 2024. 8. 24.(토) ~ 8. 30.(금) [7일간]
- 개최지 : 경상북도
- 경기장 : 금오공업고등학교, 신라공업고등학교,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구미전시컨벤션센터, 박정희체육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 참가원서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2024. 4. 29.(월) ~ 5. 3.(금) 18:00까지 [5일간]

나. 접수방법

- 참가원서 : 온라인 접수 (<https://meister.hrdkorea.or.kr>)
- 제출서류 : 접수 시 파일(스캔본) 첨부 ( 학교, 기업체 등 소속이 있는 참가자 )
  - ① 학생(직업전문학교 포함), 군인, 공무원 등 : 추천서 1부
  - ② 근로자 : 추천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3개월 이상 근무사실 확인) 각 1부
  - ③ 학원생 : 추천서 및 수강료 납입증명서(3개월 이상 수강사실 확인) 각 1부
- ※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수 자격 무효

다. 참가자격

- 2024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금, 은, 동, 우수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023년 입상자에 한함)
- ※ 2024 경상북도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인정받은 대회의 직종별 최고득점자 1명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지방대회 당시 참가한 시·도기능경기위원회를 소속 시·도로 접수하여야 함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직종과 동일한 직종으로 참가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주민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참가원서를 접수하며, 산업체근로자로 참가하거나 학교, 기업 등 소속단체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단체소속으로 접수하며, 추천서 및 추가서류는 해당 소속기관의 주사무를 관할하는 기능경기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함
- ※ 민간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필요(6개월 이상 거주사실 확인)
- 팀별 참가 직종(산업융합드론제어, 메카트로닉스)은 지방대회 입상 시의 팀과 동일한 팀으로 접수, 팀원 중 1명이라도 불참 시 해당 팀은 경기 참여 불가함
-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산업체근로자 특별로 입상한 경우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산업체근로자로 참가하여야 함(일부 선수로 참가 불가)

#### 추천서 및 추가서류 문의처

시·도	접수장소	연락처	시·도	접수장소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로 279	02-2137-0418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창로 135	033-248-8506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904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043-279-9024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15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상곡길 27	041-620-7653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820-8606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성로 69	063-210-9215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32	전남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720-8522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042-580-9113	경북	경북 안동시 사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840-3024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홍기로 347	052-220-3244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212-720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96	044-410-8014	제주	제주 제주시 북지로 19	064-729-0727
경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249-1203			

#### 시 상

가. 시상내역

구분	입상 선수	우수선수 배출기관
금	금메달,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탑 및 상금 300만원</li> <li>▶ 은탑 및 상금 200만원</li> <li>▶ 동탑 및 상금 100만원</li> <li>※ 소정의 포상기준에 의거 선정</li> </ul>
은	은메달, 상장 및 상금 600만원	
동	동메달, 상장 및 상금 400만원	
우수상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상장 및 상금 20만원	

※ 금은동 입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의거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또는 기능사 필·실기 시험 면제함  
- 입상자 자격면제를 위해 원서접수 시 Q-NET([www.q-net.or.kr](http://www.q-net.or.kr)) 가입 및 아이디 기재 필수

나. 시상 관련 유의사항

- 직종별 입상자는 직종별 참가선수 수에 따라 입상자 선정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선정할 예정임
- ※ 단, 입상자와 0.4점 차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메달(우수상)을 공동수상하며, 추가 메달 입상자는 각 메달당 2명(팀), 추가 우수상 입상자는 3명(팀)까지 가능
- 2026년 제48회 중국 상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직종은 참가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해당 직종 상위 득점자 2명(팀)에게 국가대표선수 선별을 위한 국가대표평가전 참여 자격을 부여함
- ※ 폴리메카닉스, 사이버보안, 모바일로보틱스, 산업융합로봇 직종 등은 별도 국가대표선발전 실시 예정

#### 참고사항

- 시설목록에 따라 경기에 필요한 일부 장비, 공구, 재료, 소프트웨어 등은 선수가 지참하여야 함
- 대회참가에 따른 이동과 대회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선수 본인의 책임임
- 자세한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s://meister.hrdkorea.or.kr>) 및 한국위원회 032-509-1847, 1846, 1842, 1849

**고용노동부장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